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1>

삼라만상은 본래 한가하다

학승이 물었다. “만법(萬法)은 본래 한가하다. 사람이 스스로 시끄럽게 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오면 죽는다.”

問 萬法本閑而人自鬧 是什麼人語 師云 出來便死

여기서 만법(萬法)은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불교는 만물을 생성시키고 기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법(법칙)이라고 부른다. 근원에서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와 동시에 법(法)이 나와서 만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만물을 법, 즉 만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법은 물질적인 것만 이르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과 어떤 의미까지 다 포함해 만법이라고 지칭한다.

삼라만상 유정무정은 본래 한가하다. 본래 고요하다. 수많은 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서 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세상이 시끄럽고, 슬프고, 복잡하고,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렇다. 정말 그렇다. 마음이 동요하고 있으면 시끄럽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항상 고요하다.

그런데 ‘만법이 본래 한가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스승의 스승을 계속 추적해 가보면 결국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다. 만일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는 이미 죽어버린다. 설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든 누가 감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학승이 물었다. “부처가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말은 단견(斷見)입니다. 어떤 것이 부단견(不斷見)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問 不是佛不是物不是衆生 這箇是斷語 如何是不斷語 師云 天上天下唯我獨尊

단견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모든 것은 부정하는 견해이다. 그것은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것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단견이다. 그 반대, 그대는 부처이다. 저것은 물건이다. 그대는 중생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향수가 좋다. 짜다, 싱겁다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부단견이다.

불교는 단견과 부단견 양쪽을 주장하지 않는다. 양자(兩者)는 다 바른 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는 양자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조주 스님이 견해를 보였다. 바로 ‘천상천하 무여불’ 하고 외친 것이다. 조주 선사는 어떤 사람이 단견을 주장하면 부단견을 보이고, 부단견을 주장하면 단견을 보여서 양자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모두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들이기 때문에 양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양자를 떠나면, 부처의 삶을 가게 된다. 그대에게 무엇이든 찾아오면 거부하지 않는다.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막지 않는다. 부귀의 삶도 거부하지 않는다. 가난한 삶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세를 맡겨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대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물

님의 몸에서 나오는 인자한 빛이 일원상이다.

안화(眼花)는 눈병이 났을 때 보이지도 않는 꽃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다. 실제 안화를 보려면 눈을 약간만 심하게 눌렀다 떴다 하면 된다. 그러면 금방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안화를 보게 될 것이다. 안화는 사실이 아니다. 눈병이 났을 때 생긴 허망한 현상이다.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않으면 원상이 보인다.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원상이 보일 리 없다. 다만 선사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중생을 위해 원상의 신비를 말해주면서 “그대가 반드시 눈을 떠서 부처님의 원상과 같은 자비한 빛을 내거라” 하고 독려할 뿐이다.

그런데 이 문답의 말미를 읽은 선사들이 본다면 반드시 지적 받아 마땅할 것이다. 100세가 넘은 조주 화상이 망령이 났다고 일갈을 할 만하다. 중생을 위해 해주는 말이 되려 중생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의 잘못을 알아챈 납자들에게 물었다. 말미를 뭐라고 해야 중생을 위하는 말이 되겠는가? 만일 본 납자라면 “나는 지금 사람을 위하고 있어” 하고 말할 것이다. 그 저의를 알겠는가.

부처의 삶은 양자에 집착 않는 것 성인과 범인이 없을 때 불국토 이뤄

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이것이 부처의 삶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원상(圓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어려서부터 출가한 이래 안화(眼花)를 본 적이 없어.”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원컨대 그대가 오랫동안 비로자나불의 원상 보기를 원하노라.”

問 如何是毗盧圓相 師云 老僧自小出家 不曾眼花 學云 和尚還爲人也無 師云 願你長見毗盧圓相

비로자나불은 삼신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부처이다. 일명 범성신(法性身)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 비로자나불은 전생애 수없이 수행해 우주의 근원인 범성과 같아진 부처이다. 원상은 부처의 뒤에 있는 둥근 일원상(一圓相)이다. 부처

학승이 물었다. “성인(聖人)과 범인(凡人)이 다 없어졌을 때는 어떠한 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원컨대 그대여, 대덕이 되

어라. 노승은 불조의 장어나 되는 자이다.”

問 凡聖俱盡時如何 願你作大德 老僧是障佛祖漢

여기서 범인(凡人)은 여러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성인의 반대 개념이다. 불교는 양자(兩者)로 갈라진 것이 도리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반야심경)과 (신심명)의 대표적 사상이 바로 상대적인 양변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과 범인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사악함과 어리석음이 없다면 지혜나 인자함은 따로 필요 없다. 범인과 성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만 남는다. 그렇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전쟁도 없고 따로 평화라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지상낙원이요, 불국토이다.

범성은 없어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돼야 한다. 방황과 격외구를 구사하는 선사는 필요 없다. 이미 옛 조사들이 꿈꾸던 세계가 건설된 것이다. 선사는 조사들의 뜻에 반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가장 큰 덕을 갖춘 사람들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규 교수의 선어록 해제 28 벽암록(碧巖錄)

공안 100칙 해설... 종문제일서

(宗門第一書)

《벽암록》 10권은 본래 《불과원오선사벽암록(佛果圓悟禪師壁巖錄)》으로 달리 《벽암집(碧巖集)》이라고도 불린다. 저자는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및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다.

송대 초기에 활동했던 운문종의 조사로서 설두중현의 자는 은지(隱之)이다. 그 법계는 운문문인 - 향림정원 - 지문광조 - 설두중현이다. 설두는 선장이면서도 시가 및 문장에 뛰어났다. 설두는 그의 나이 40세 무렵에 《경덕전등록》 30권에서 고인의 공안 100칙을 선별하고, 그 각각의 내용을 운문 형태로 표현해 《설두송고(雪竇頌古)》 100칙을 짓고, 이것을 그 제자 원진(遠塵)이 편집했다.

설두가 임전한 11년 후에 사천성 성도에서 원오극근이 출생했다. 원오는 임제종의 제11 세이면서 양기파의 제4세로서 《설두송고》를 애독해 고향이었던 사천의 성도, 호남의 협산, 상서의 도림 등의 세 곳에서 강독하면서 제자들의 구도심을 제고했다. 이후 호남 예주의 협산 영천원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창하여 필록했는데 그가 주석했던 벽암(碧巖)이라는 당호의 이름을 따서 《벽암록》 혹은 《벽암집》이라 했다.

《벽암록》의 저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촉본(蜀本): 원오가 성도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으로 선화 7년(1125)에 무당(無党)이 불인 서문이 있다. ② 북본(福本): 협산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으로 건평 2년(1128)에 보조(普照)가 불인 서문이 있다. ③ 일야본(一夜本): 도림에서 제창하고 필록한 것인데 《불과벽암파관격질(佛果壁巖破關擊節)》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본이다. ④ 기타 촉본을 저본으로 하고 북본과 일야본을 참조해 중간(重刊)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포본으로 불린다.

《벽암록》 100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① 100가지 각각의 본칙에 원오극근이 불인 수시(垂示) 혹은 시중(示衆) ② 설두중현이 찬술한 송고(頌古) 100가지 고칙(古則) 혹은 본칙(本則) ③ 100가지 고칙에 설두 자신이 불인 100가지 송(頌) ④ 100가지 본칙과 100가지 송의 각각 장구(章句)마다 원오극근이 불인 작어(著語) ⑤ 100가지 본칙과 100가지 송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불인 평창(評唱)

여기에서 ②와 ③의 부분은 설두중현의 기록에 해당하고, 기타 ①과 ④와 ⑤의 부분은 원오가 제창한 것이다. 곧 수시 혹은 시중은 각각의 본칙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대의로서 일종의 서문에 해당한다. 본칙 혹은 고칙은 《경덕전등록》에서 선별한

고인의 일화로서 《벽암록》의 중심내용이다. 송은 본칙의 내용을 문문시의 형태로 압축한 것으로 상징성이 뛰어나다. 작어는 각 문장과 구절마다 간략하게 불인 촌주(寸註)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평창은 본칙과 송에 대해 자세한 배경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본칙과 송을 파악하기 위한 자세한 해설이다. 이와 같이 《벽암록》은 공안집의 성격을 지닌 책으로 제1칙 달마확연(達磨廓然)부터 제100칙 파릉취모(巴陵吹毛)까지 그 구조가 동일하다.

《벽암록》에 대해 특히 임제종 계통에서는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일컬어 질만큼 참선학도들에게는 중요하게 간주됐다. 공안집은 공안을 공안집의 핵심으로서 이후 이와 같은 구성과 특징을 지닌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현됐다. 선문답의 집대성인 공안집은 점차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지 찍고 끈지 찍으면서 정형화된 작품으로 만들어 갔다. 그것은 선문답을 깨침에 나아가는 수단 내지 도구화시켜 많은 선자들이 하여금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각각의 기준에 비추어 선별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붙이기도 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의 어떤 선문답을 본칙(本則) 혹은 고칙(古則)이라 한다. 그 고칙에 대해 편자가 자신의 견해를 계속으로 붙이기도 하고, 산문으로 붙이기도 한다. 고칙에 대해 계속으로 나타내는 것을 송(頌)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송을 합해 송고(頌古)라 한다. 곧 고칙에 송을 붙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칙에 대해 산문으로 나타내는 것을 염(拈)이라 하는데 이 경우 고칙과 염을 합해 염고(拈古)라 한다.

이 송고와 염고에 대해 후대인이 다시 주석을 가하기도 했다. 이 경우 송고나 염고에 대해 전체적인 의미를 송고나 염고 앞에 제시한 짤막한 산문을 시중(示衆) 혹은 수시(垂示)이라 한다. 그리고 송고나 염고의 각 어구마다 아주 짤막한 촌주를 붙였는데 이것을 작어(著語)라 한다. 송고나 염고를 들고 전체적으로 그에 얽힌 일화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으로 풀어난 것을 평창(評唱)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설두중현에게는 달리 《설두염고(雪竇拈古)》 100칙이 있다. 이에 대해 원오극근이 작어와 촌평을 가해 필록한 것이 소위 2권으로 구성된 《불과원오격절록(佛果圓悟擊節錄)》 100칙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설두중현

대각사 불교명상대학 2기생 모집

불교명상 위빠사나 전문수행처에서 참나를 찾는 처방전 금강경(저자직강)과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자유인이 되십시오

❖ 입학식 : 2010년 12월 12일(일) 10:00
매주 화, 목요일 (12월 16일 첫강의)

오전반 : 오전 10:30 - 12:30
저녁반 : 오후 7:30 - 9:30
정원 : 30명(선착순)
장소 : 대각사 선방

❖ 교과목
화요참선 : 위빠사나 참선, 마음챙김 요가
목요강좌 : 깨달음으로 가는 金剛經 (베스트셀러)
매주 첫 일요일 : 108참회순례 (3회)

❖ 등록비 : 100,000원 (3개월 과정)
입금계좌 : 농협 301-0055-8505-71 대각사

❖ 문의전화 : 053)6565-108
※ 등록자에 한해서 수행교재 교부함

大覺寺 불교명상대학장 합장
대구 남구 대평3동 336-1(앞산네거리 현충로역 3번출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성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rie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otec.co.kr